

조급한 조교 제도 개편...현장 한숨

김수혁 기자 sherkh@khu.ac.kr

대학원생 조교장학제도 변경의 여파로 이과대학(이과대)이 수업 진행에 곤란을 겪었다. 이번 학기부터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의 근무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장학금 액수 역시 줄어들었다. 이과대는 바뀐 조교 제도로는 수업을 보조할 조교를 정상적으로 배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교 발령을 보류한 채 본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생 조교는 본래 S형(장학금 500만원+월 30만원, 주 40시간 근무), A형(500만원, 주 32시간), B형(375만원, 주 24시간), C형(250만원, 주 16시간)으로 장학금 지급액과 근무시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채용하고 있었다. 이를 이번 학기부터 1형(364만원, 주 14시간), 2형(주 7시간, 182만원)으로 간소화하고 장학금 지급액과 최대 근무시간을 모두 축소했다.

개편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하달한 ‘대학원생 권의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둔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들이 과도한 업무지시와 근무보호 제도의 마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조교의 근무내용과 보상 및 권리 보호

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협약 체결, 조교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명시된 업무 외의 동원 금지, 학습권 및 연구권 보장, 인격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가이드라인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근무시간을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되 대학이나 조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무팀 우지연 과장은 “조교들이 근본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조교로 근무 중인 대학원생 A씨는 “근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일하는 이유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다”라면서 “학업을 위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등록금 충당율이 떨어져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단과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과대는 제도 변경의 여파로 학부 수업 운영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실험실습 수업의 비중이 큰 이과대 소속 학과 특성상, 해당 학문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대학원생 조교의 보조가 필수적이다. 조별로 진행되는 실험실

습을 교수 한 사람이 모두 지도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규정한 변경 제도에 따르면 현행 예산으로는 필요한 모든 수업에 조교를 배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과대의 설명이다.

결국 이과대는 개강 후 지난 2주 간 조교 보조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과대 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이과대에서는 조교 제도의 변경이 학부생의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한다”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과금효과나 학과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교무팀 우과장은 “올해 3월 말까지 조교들과의 복무협약서 체결 현황을 파악해 보고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조급하게 변경이 시행된 면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과대의 항의를 파악하고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이런 과정 또한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과대는 원활한 수업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교인력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본부와 협의를 가졌다. 이과대 행정실 남정순 계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걸린 문제이니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9학번부터 재수강 제도 일괄 변경돼

배지현 기자 fletjtdp@khu.ac.kr

2019학번부터 변경된 재수강 제도를 적용받는다. 학기당 재수강 허용 과목수가 2과목으로 제한되고, 최초 성적 취득 후 재학하는 4개 학기 이내에 재수강해야 하며, 학수 번호가 동일한 교과목만 인정된다. B- 이하 점수를 받은 과목에 한해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A+로 개정되기 전과 같다.

변경된 재수강 제도에서는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만 재수강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경제학원론’은 호텔·관광대학, 경

영대학, 정경대학 경제학과에서 열리지만 단과대학마다 학수번호가 달라 앞으로는 재수강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학사지원팀 전준하 직원은 “재수강 제도 변경에 대한 필요가 2016년도부터 꾸준히 논의됐었고 지난해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교무처가 수강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재수강 제도를 조율했다”고 말하며 “고학번이 되고 나서 재수강하는 학부생이 많아 저학번 학생이 성적을 받기 어렵고, 수강신청 경쟁률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경사항은 2019학번 이후 신입생과 2017학번 이후 편입생에게 해당된다.

행복기숙사 사생 95% “재입사 및 추천 의향 있다”

홍연지 기자 lotuspond@khu.ac.kr

【서울】 행복기숙사 거주 학생이 전반적으로 기숙사에 만족하고, 응답자의 95% 이상이 재입사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복기숙사가 사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가장 큰 만족도는 행복기숙사로 인한 거주여건 개선에서 나왔다. 응답자의 87.1%가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 항목에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전체 설문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응답자의 기숙사 입사 전 30.2%가 통학, 29.3%가 자취를 했다고 밝혔다.

높은 주거 만족도는 ‘재입사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입사를 추천’한다고 밝힌 응답

자가 95%에 달하는데서 명확해진다. 민예지(무역학 2017) 씨는 “행복기숙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시설이 좋은 점도 마음에 든다”며 재입사를 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숙사 문화와 공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1.6%와 67.8%로 나타났다. 행복기숙사는 시험기간 휴게실 24시간 개방 기간을 1주일 늘리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리학교는 신축 아름답원을 포함한 행복기숙사 3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2학기부터 매학기 사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입사생 1,049명 중 23.4%인 245명이 참여했다.

총학 홈페이지 새단장, ‘학생 청원 활성화’ 이행

양여진 기자 ccl@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3월 13일 새로운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총학은 학생과 소통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질문 및 건의’와 ‘논의 안건 제안’ 게시판 탑재를 통해 선거 때 제시했던 ‘학생 청원 활성화’ 공약을 이행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실 예약과 증명서 발급 등 편의 시스템이 추가됐다.

과거 홈페이지에 있었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은 ‘Q&A’로 바뀌고 ‘총학생회 질문 및 건의’와 ‘논의 안건 제안’ 항목이 하위에 자리한다.

총학은 이를 통해 공약인 ‘웹사이트 신설을 통한 학생 청원 활성화’를 꾀하고 학생


이 평가하는 학교와 총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게시판은 재학생 누구나 건의와 제안을 할 수 있다.

세미나실 예약 및 증명서 발급 시스템 또한 새롭게 도입됐다. 학생회관 2층 두런두런 세미나실 예약과 총학 명의로 발행된 협조전 발급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서울캠 중앙운영위원회는 3월 말까지 새 홈페이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계획이다. 총학 측은 “의명 신문고 게시판 개설과 유학생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역시 홈페이지 개설을 계획 중이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즈음 정식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면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0기(남·여)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1기(남·여)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6(토), 합격자 발표 : 4.25(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27(토)~5.17(금), 합격자 발표 : 6. 13(목)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17(월)~7.19(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16(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 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02-961-0085~6 국제) 031-201-3271~4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